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8월 30일 연중 제22 주일

지난주일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 직분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 사도였다. 인간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요, 가족들이나 친지들, 고향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껏 대놓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인데,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느라 고생 많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한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충신 모드였던 베드로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은 칼바람보다 더 매섭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베드로는 순수한 애정으로 말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다.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승리만 취하려는 인간의 상식은,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와 세속적 메시아 관을 우선시한 인간적 신앙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예수님의 말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에서 '사탄(Satan)'은 히브리어로 '적대자, 방해자'를 뜻한다. 사실 베드로를 악마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게 만드는 유혹의 출처'가 사탄의 공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Get behind me(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스승의 길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위치'로 돌아오라는 준엄한 재정립이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구원의 반석(베드로)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가장 위험한 걸림돌로 반전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고통을 피하고 자기 생명을 지킬 것인가'에 집착하지만, 하느님의 생각은 '어떻게 자신을 바쳐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로 향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문제는 우리 역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명문대 진학, 역대 연봉, 건강, 확실한 노후 대책. 세속의 공식으로는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나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죽으러 가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싶다.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적당히 타협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두 길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자아로 똥똥 뭉쳐 자기 안위만 챙기려는 상태에서는 십자가란 그저 성가신 짐 덩어리일 뿐이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고통과 나약함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데, 신앙인은 매일 자아와 십자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다. 둘 다 손에 쥐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미지근한 제자는 존재할 수 없다.

제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자. “주님, 당신께서 저를 꺾시어 저는 그 꺾에 넘어갔습니다.” (예레 20,7) 이런 거의 하소연을 넘어서선 항의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돌아오는 건 조롱과 치욕뿐. 억울해서 “다시는 주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 고 버텨보지만, 속에서 불길기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 사실 십자가는 세속적 욕망을 거슬러 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일’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오로는 간단한 시선 전환을 제안한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로마 12,2) 카메라 렌즈를 나에게 맞추면 여전히 세속의 불안에 시달리지만, 렌즈를 하느님께 고정하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하느님의 일'을 향한 동반의 과정임을 알게 된다.

원래 십자가는 치욕과 수치의 사형 틀이다. 베드로가 찢어진 것도, 예수님이 겻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쫓겨나 주춤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자.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신을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해 줄 일이다. 힘들면 예레미야처럼 하느님께 징징거려도 괜찮다. 예수님조차 시몬의 도움이 필요했을 만큼 십자가는 원래 무거운 법이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선택하면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길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 방식의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라 6, 14)

	시간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봉헌	보편 지향 기도
26년 8/30	9시	소은주(크리스티나)	이정명(세실리아)	최경애(아가다)		박유자(요안나)
	11시	김경숙(클로틸다)	서원복(로사리아)	이향례(자넷)		김영자(마리안나)
26년 9/6	9시	현재영(바오로)	박은미(안젤라)	현동숙(소피아)		박유자(요안나)
	11시	정형식(저스틴)	유용(약종아우구스투스)	영어권		정형식(저스틴) 영어권

공동체소식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세대에서 세대로 기금 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교우들께 배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납부한 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5년 동안)

◎구역 반장 교육 안내
▶일시: 8월 30일(일) 오전 10시30분 신관1호실
각 구역 반장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빈첸시오 월레모임
▶일시: 8월 30일(일) 9시 미사후 신관4호

◎북미주 한인 증북부 여성 제 18차 꾸르실료 교육
▶일시: 9월 4일(금)오후 5시~9월 7일(월)오후 5시
▶장소: Bellarmine Jesuit Retreat House
참가자: 이향례 (자넷),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
봉사자: 김경순(마리아 막달레나), 권행숙(요안나)
김지현(비비안나)
교육 참가자와 봉사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27년 성령기도회 임원
▶회장:김클로틸다 ▶총무:소은주(크리스티나)
▶회계:이정명(세실리아) ▶홍보:장수산나
▶봉사:김양균(아네스),배형자(헬레나),임장하(데레사), 정명례(소피아), 정행자(세실리아)
▶음악:김영일(마이클),김명수(토마스)
▶고문:이지훈(베드로), 김영일(마이클)

◎성경공부. 성경통독 안내
▶성경공부: 9월 9일(수) 오후 2시 최에스텔수녀님
▶성경통독: 9월10일(목) 오후6시 이마틸다수녀님

◎2027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교리반시작: 2026년 9월 13일(일)오전 9시 30분
▶청년교리반: 2026년 9월 12일(토)오후 4시 30분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일정: 2026년 9월 13일 ~ 2027년 5월 2일
▶주일학교(CCD): 매주 일요일 오전 9:20 ~10:30
▶한국학교: 오후 12:30 ~ 2:30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표혜진
(kmckkoreanschool@gmail.com)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Fr. 단웨버(Donald Webber) 80회 생신 축하식
▶9월 6일, 80회 생신을 맞으시는 단 웨버 신부님 생신 축하 케익 나눔이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영적꽃다발’ 기도용지는 8월 30일까지 제출함에 넣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박병규(어거스틴), 모기화(카타리나), 임장하(데레사), 정명례(소피아), 음희자(카타리나), 서영일(야고보), 송경의(마르코), 김문갑(마르코), 박종원(어거스틴), 박진우(마이클)

○교무금	\$ 1,415.00	○주일헌금	\$ 1,619.00
○감사헌금	\$ 100.00	○영어헌금	\$ 203.00
○성물방입금	\$ 24.00		

■감사헌금: 박유자(요안나)

『2026년 8월 30일 미사 지향』

■생미사
지석철(스테파노), 엄광식(토마스), 유명주(마가렛), 송영현, 김앤디(안드레아), 한명수(아오스딩마리아), 박은영, 안현주

■연미사
이금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쿨라따), 이선애(마틸다), 주영선(소피아), 음규진(요셉),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김성애(마리안나), 김진봉(베드로), 조문기(샤스땅야고보), 이동준(베드로), 심동섭(요한), 신정현(마리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9월 1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쿨라따), 김순열(카타리나), 김성애(마리안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9월 2일(수)~9월 5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승재(야고보),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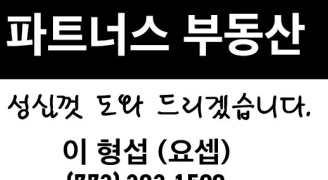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파트너스 부동산
성신킷 도하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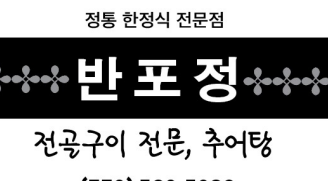
배 페인링
배 흥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Michael Zyung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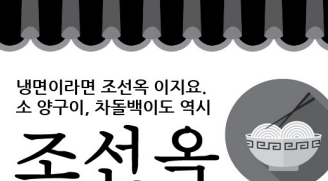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
에터미
최 켄마
(847) 414-0863



B&W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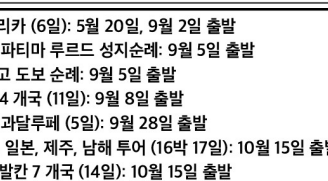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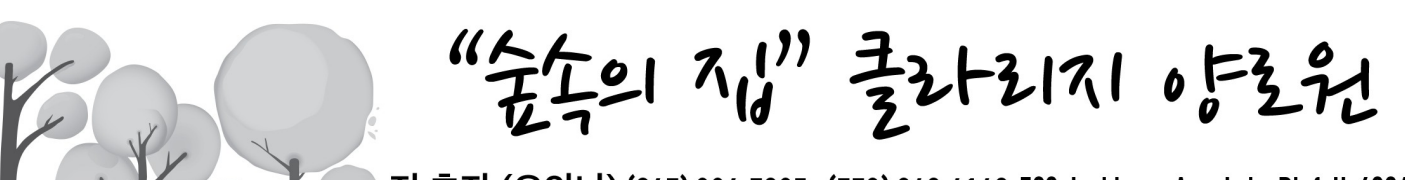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켄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월):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월):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월):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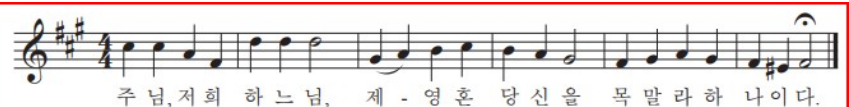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8 월 30 일 연중 제 22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0,7-90
● 화답송



주님, 저희 하느님, 제 -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 나이다.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쁨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2,1-2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음 마태오.16,21-27
●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4	봉헌성가 217
	성체성가 502	파견성가 6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